

구술생애사를 통한 마을재생전략 수립을 위한 활용 요소 도출 연구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을 중심으로 -

진소형* · 김아연**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석사과정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원도심의 오래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해당 지역이 가진 자산의 고유한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지역자산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지역 정체성이 사라진 채 획일화되는 도시 공간 증가로 뉴타운,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사라져버리는 장소성과 지역의 흔적에 주목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엄수진, 박소현, 2010).

최근 도시재생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단위로 산재한 다양한 지역자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자산과 인적 네트워크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는 지역의 특색을 유지하는 개발형태로 바뀌는 실정이다(심영선, 2014).

또한, 서울도시재생종합플랜에서는 저성장시대에 맞춰 지금까지의 일률적인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계획부터 시행까지의 전 과정에서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맞춤형 정비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지속성이 있는 동력을 형성해 그 공간만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이 수정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지역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지역정체성을 보존하며 개발을 진행하기 어렵다. 기록이 남겨진 지역은 아카이브를 통해 과거 모습과 새로 생기는 도시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게 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거나 실험적 성격인 경우가 많다. 다양한 관점,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및 지역민의 기억을 기록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인의 시각으로 수집되어 아름답게 포장된 기록들이 개발 이전의 공간과 원주민들의 장소 경험과 기억을 온전히 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기록화 사업을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전말숙, 2012).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현장 밀착형 연구방법인 구술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해 전농동과 관련된 주민의 일생을 기록하여 마을

의 정체성을 찾고 새로운 내부자적 마을재생전략으로써 마을 아카이브설계에 활용 가능한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화인류학적 조사방법론으로 구술생애사 연구방법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기존의 구술생애사 연구방법과정에 대상지선정, 사전조사, 구술자선정기준설정 등의 단계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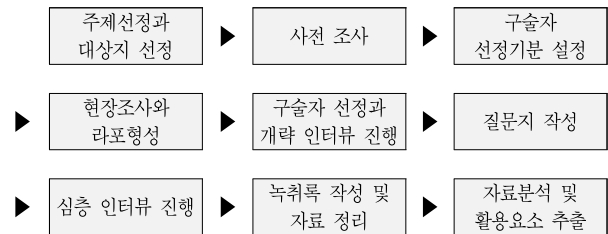


Figure 1. 연구의 흐름

(1) 주제선정과 대상지선정

서울 도시 내 일찍이 서민거주지로 계획되어 자리잡은 지역이며 현재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지정으로 오래된 마을의 모습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인 대상지 중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을 연구지로 선정하였다.

(2) 사전조사

사전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현지답사를 실시하며, 전농동에 관련된 연구문헌, 고지도 등 다양한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공간이력을 기반으로 역사, 문화, 생활 등을 살펴보았다.

(3) 구술자 선정 기준 설정

구술자 선정 기준으로는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주체에 대해 타당하고 유효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구술자 선정 기준을 설정했으며, 총 5가지의 그룹을 설정해 최소 1개 이상 속한 사람들을 구술자로 선정하였다.

Table 1. 구술자 선정 기준

선정기준	
1	전농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
2	전농동으로 이주해온 사람
3	전농동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혹은 했던 사람
4	사라져가는 상업에 종사하는 혹은 했던 사람
5	젊은 세대의 사람

· 전농동에서 30년 이상 상주해온 사람
· 본 연구에 대해 참여 동의하고 본인의 경험을 본 연구를 통해 공유하기를 수락한 사람

(4) 구술자 선정과 개략인터뷰 진행

본 논문이 채택한 인터뷰방식은 개략인터뷰와 심층인터뷰로 나뉜다. 개략인터뷰는 구술자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을 섭외해 진행했으며, 구술자의 기본정보와 인터뷰 동의 여부를 개략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다. 구술자로는 총 8명으로 커피집사장, 제동병원 선생님, 오씨아줌마, 황통장, 전씨아저씨, 영아할머니, 포도나무집 아줌마, 계주네가 선정되었다.

(5) 심층 인터뷰 진행과 녹취

구술자들과 2020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간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출생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내용을 질문으로 하며, 1차 인터뷰에서는 개방적이고 비지시적 인터뷰로 진행하며,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구술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2차 인터뷰부터는 이전 녹취록을 분석해 인터뷰 전략을 구성하고 추후 질문들을 계획했다. 인터뷰 진행 시 동의를 얻어 녹음기를 사용했다. 말소리 이외 인터뷰 시 보이는 구술자의 몸짓과 표정을 인터뷰 노트에

Table 2. 선정된 구술대상자 기본 정보

	구술자1	구술자2	구술자3	구술자4	구술자5	구술자6	구술자7	구술자8
명칭	카페사장	제동병원 선생님	계주네	포도나무집 아줌마	전씨아저씨	오씨아줌마	황통장	영아할머니
성별	여	남	여	여	남	여	남	여
생년	1968	1931	1940	1940	1941	1942	1927	1931
고향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황해북도 경기도 대남면 (현 장풍군)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경기도 파주시	평안북도 박천군 덕알면
이주	전농동-원서동-전농동	순화동-전농동	홍은동-청파동-전농동	전농2동-전농4동 (현전농1동)	효창동-만리동-전농동	개봉동-전농동	전농동	약수동-옥수동-한남동-전농동
거주기간	40년	51년	49년	45년	45년	47년	73년	40년
직업	선생님, 카페운영	의사	주부	주부	분방구운영, 쌀집운영, 사통통장	법정사	군인, 복덕방운영, 오통 통장	옷감장사 주부
결혼	O(1993)	O(1963)	O(1967)	O(1963)	O(1970)	O(1968)	O(1950)	O(1955)
배우자 직업	공무원		표고사운영, 집장사	채소장사 (리아카)		벽돌공장운영, 목수, 경비		
자녀	여2	남1/여1	여2/남1	남3	남2/여1	남2/여1	남2/여1	남2/여2
선정기준 유형	1,5	2,3	2	2	2,3	2,4	2,3	2,4

적으며 진행했다. 인터뷰 후 1차적으로 구술에 있는 그대로 문서화하는 작업을 실시했으며, 원고의 형태는 조사자가 질문을 하고 구술자가 응답하는 형태로 구성하여 현장감을 살렸다. 또한, 표준맞춤법에 따르지 않고 구술자의 어투를 그대로 살려 2차 정보 획득하여 사실성을 높였다.

(6) 자료분석

심층 인터뷰 진행 후 녹취록 작성과 자료 정리를 진행하며 문서화 작업이 끝난 구술 내용을 시간순으로 나열하여 생애사를 기록하였다. 녹취록 자료를 정리하며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선별해 Ratner(2002)의 4단계 구술분석방법에 활용하여 주민들의 관점에서의 전농동을 분석하였다. 구술자의 전농동에 대한 실제 기억이나 생각이 표현된 문장을 추출해 재언어화 및 주제화하는 해석적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문장을 식별해 이를 의미단위라 하고 유사한 주제를 모아 중심주제를 도출한다. 중심주제를 묶어 종합주제로 발전시키고, 하나의 보편적 주제로 통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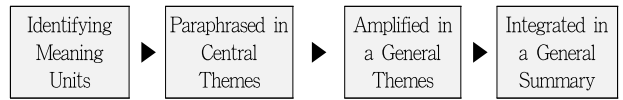


Figure 2. Ratner(2002)의 4단계 구술분석방법

II. 연구 결과

1. 생애사

본 논문에서는 구술생애사 심층인터뷰를 통해 총 8명의 전농

동 주민 생애사를 기록하였다. Table 3은 8명 중 구술자6이었던 오씨아줌마의 생애사 일람표이다. 생애사 중 일부 요약하고 있으며 대략적인 생애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오씨아줌마는 1940년도 전라북도 김제면 금구면 용지리에서 태어났고, 당시 농사를 지며 생계를 유지했다. 1965년 동네사람들의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어 익산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 1966년도에 첫째 딸을 낳았고 벽돌 공장을 시작하게 된다. 농사일과 동시에 하다보니 일이 힘들어져 벽돌공장을 1970년도에 그만두고 벽돌공장에서 알던 사람이 서울에 집을 지어줘 상경하게 된다. 처음에는 구과발로 정착해 벽돌공장에서 품삯 2,700원을 벌며 살다가 1971년 개봉동으로 이사 가서 살았다. 그리고 1973년 시누남편의 제안으로 전농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현재까지 살고 있다.

Table 3. 오씨아줌마 연도별 생애사일람표

년도	생애사건	나이	비고
1940	출생	1세	전라북도 김제군 금구면 용지리 광현리에서 태어남. 당시 농사지음. 아버지는 동네 이장이셨음. 딸6아들1에 둘째딸.
1950	휴교	9세	초등학교 1학년 때 6·25로 학교가 잠시 쉬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다니게 됨.
1965	결혼	26세	동네사람의 중매로 결혼함. 익산에서 10식구가 한 집에서 살았음.
1966	첫째 출생	27세	첫째 딸 낳고. 출가해서 방 한 칸짜리에 2만원인 곳에 살았음. 시골에 벽돌 공장을 차리고 2년동안 운영함.
1969	둘째 출생	30세	
1970	구과발로 이사	31세	벽돌공장 사람이 서울에 집을 구해줘 서울 구과발로 상경함. 구과발에서 1년 살았음. 벽돌공장에서 배운 기술로 벽돌 공장에서 일함. 품삯이 2,700원 이었음.
1971	셋째 출생, 개봉동으로 이사	32세	개봉동 강면리로 이사해 2년 살았음.
1973	전농동으로 이사	34세	전농동으로 시누남편(해성여고 교사)의 제안으로 이사. 당시 황통장님이 중매로 전씨 집에서 3년 살았음. 보증금 30만원에 월세 10만원. 남편은 목수일을 하러 다님. 당시 밥과 술을 파는 장사를 시작함.
1976	무허가집 구매와 장사 시작	37세	남편의 수입과 계모임으로 돈을 모아 전농동 온지 4년차에 무허가 집 240만원에 구매. 구매 후에는 안방과 앞에 가게는 세를 줌.
1977	장사 그만둠	38세	남편이 기술자가 되고 나서 장사를 그만둠.
2003	전농동 안에서 이사	64세	공원사업으로 공시시가 평당 600만원으로 처준다며 쫓겨나게 되어 빌라로 이사감.
2012	배우자 사별	73세	허리 염증 악화

2. 구술 분석

8명의 구술자들의 구술생애사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 중 추출된 유의미한 문장을 활용해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는

요인들을 도출했다. 보편적 주제로는 전농동 사람들, 전농동의 변모, 전농동에 대한 감정으로 나뉜다. 전농동 사람들(보편적 주제)의 종합주제로는 정착, 생계수단과 경제성, 커뮤니티, 여가문화로 분류된다. 전농동의 변모(보편적 주제)의 종합주제로는 전체적인 모습, 길, 집, 없어진 공간, 변화한 공간, 커뮤니티 등으로 분류된다. 전농동에 대한 감정(보편적 주제)의 종합주제로는 예전모습에 대한 그리움, 현재의 만족, 재개발에 대한 우려로 분류된다.

(1) 전농동 사람들

전농동 사람들(보편적 주제)에서는 현재 어떤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보편적 주제이다. 당시 광주사태, 주변 사람의 권유, 시골같은 분위기, 자녀들의 학업 등 다양한 이유로 전농동에 정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세들어 살다 돈을 모아 집을 구매했고, 80년대 후반 90년대에 다세대로 주택을 지어 현재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7-90년대는 경제활동으로 인해 바쁘고 힘든 시기를 보낸 사람들이다. 당시 계, 친목회 등을 통해 커뮤니티를 유지했으며, 서로가 애칭을 부르며 우물가, 공터, 쌀가게 등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다.

Table 4. <전농동 사람들>의 구술분석 내용 및 과정

보편적 주제	전농동 사람들
종합주제	커뮤니티
중심주제	계
의미단위	[저거 나도 언제 먹었던 게 젤로 기억에 나나면. 그 우리 오통 친목회서 놀러 갈 때 배추를 세 통을 큰놈을 사가고 김치를 큰 통에 담거든 그때 찢어먹으면 디게 맛있었어.][한 집에 다같이 모여서 할 때도 있고 혼자 할 때도 있고 혼자했지. 재미있었는데 그때 재미있었는데.][이쪽 집으로 와가지고 팔십년대 이 집으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계같은 거 하면서 다시 회복했지. 내가 회복했지 할머니가.]
중심주제	애칭을 사용
의미단위	[저 우리 계원이었는데 속이엄마라고 있어. 그 사람이 좀 친하고 여거 거시기 남대문 김씨네하고 친하고.][남대문서 그 거기서 있다가 여로 이사와서 남대문 김씨라고 그러.][딸이 숙이고 이 집 그 집 김씨는 마누라는 양씨야 그 집하고 친하게 살았지. 집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그 전에는 많이 친했어야 그 동네에서 혈기 전에.]
중심주제	복덕방
의미단어	[다들 거기 앉아서 놀았지 뭐.]
중심주제	골목길
의미단어	[그리고 지금 할머니집 앞에 골목에서 고무줄놀이하면서 놀았어.][친구집에 가서 많이 놀고 이 동네 골목골목에 친구들이 살아서 그랬던거 같아.][골목에 사는 사람들 집에 놀러가서 놀았지. 예전에는 남의 집도 잘 갔으니깐 요즘은 잘 못가지.]
중심주제	우물가/공터
의미단어	[그냥 저거 우물가에 만나면 다 만나.][평상도 없고 서서들 여가 터가 좀 넓게 있었어. 금계로 가서 얘기들 하고 서서하지 않을 대가 있어 없지.]
중심주제	아직까지 유지되는 커뮤니티
의미단어	[아직까지 계속 친하게 지내지.]

(2) 전농동의 변모

현재는 변하거나 없어진 공간과 커뮤니티를 통해 전농동의 변모를 알아볼 수 있는 보편적 주제다. 전농동이 형성된 초반의 모습부터 발전하게 되는 모습, 현재의 모습까지 수집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거주를 시작한 초반에는 밭과 논이 많았으며, 비가 많이 내리면 동네가 금방 물에 찼고 지금 존재하는 도로는 모두 70년대에 생긴 것으로 그전에는 우마차와 마이크로버스가 다니는 좁은 길이었다. 또한, 집구조와 형태의 변천과 지금은 사라진 텃밭, 뽕밭, 골목시장 등의 공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전농동로터리, 청량리역, 서울시립대학교, 배봉산, 주변지역 등의 변모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전농동의 변모>의 구술분석 내용 및 과정

보편적 주제	전농동의 변모
종합주제	도로
중심주제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집을 헐었음
의미단위	[그치 그집이 많이 헐렸어. 그 거시기 약국은 안헐리고 그 답에 그 또 길이 있어 셋골목 이쪽으로 난 길 이거는 큰길이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많이 들어갔어. 길로 이쪽에도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길을 만들었지. 그전에는 죄간 했는데 큰길을 만들었어.][집이 들어가서 길을 만들었어. 저쪽으로 여가 신행당약국 집이 크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쪽에도 집이 있을 거 아니야. 공계루 이쪽 집을 헐어가꼬 이만큼씩은 나갔을 것이야. 길을 만들었는 것이야. 여기 헐어가꼬 길을 냈어. 크게 여기는 길이야.][이쪽으로는 아니고 아니다 여기도 신행당약국만 안 들어가고 이 집도 들어갔어. 지금 가게 쪽 있는 곳(현 가구가게, 우리마트) 뭘 가게 뭘 가게 그집이도 많이 들어갔어. 근데 이집(신행당약국)은 안 들어가고.][그 전에는 차가 한대? 구르마가 다닐 때여 리어가 한 대씩 나가는 거 그다음에는 차가 막 다니지.][밥장사도하고 술도 팔고 이 동네에 이렇게 길이 없었거든. 그 길옆쪽에 밥도 팔고 술도 팔고]
중심주제	공사가 많았던 시기(1970년대)
의미단위	[저 동네 길 널 적에 밭하고 집 짓는데.][아따 그때는 라면 10개 끊어서고 저 나사렛교회 길 공사 할 적은 바쁘게 가면은 라면이 퍼졌다고 얼마나 지랄들 하고 어이고 징그러 죽었어.][밥장사도하고 술도 팔고 이 동네에 이렇게 길이 없었거든 그 길 옆쪽에 밥도 팔고 술도 팔고]
종합주제	골목시장
중심주제	물리적 모습
의미단위	[모래가게, 모래가게를 뭐라고 해야하나. 모래가게, 지금은 철물점같고 철물점이라해야.][여기는 골목 여가 땡기는 골목이야. 그거는 여가 육곳간(정육점) 여가 길이고.][여기 앞에는 집이 많이 있었고 육곳간, 모래가게, 여가가 그 면은 여기 길이 있었고.][평상도 없고 서서들 여가 터가 좀 넓게 있었어. 공계로 가서 얘기들 하고 서서 허지 았을 데가 있어 없지.]

(3) 전농동에 대한 감정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며 구술자가 전농동에 대해 나타내는 감정을 분석해 전농동 주민들이 전농동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며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보편적 주제이다. 주민들은 전농동이

구역별로 발전됨에 따라 그 구역에 살던 기존 주민들과 이루었던 커뮤니티와 시간을 보내던 공간이 없어지면서 나오는 아쉬움과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전농동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만약 개발이 된다면 또 다시 잃게 되는 공간과 커뮤니티에 우려를 보였다. 하지만 작은 도서관과 공원 등의 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곳곳에 생긴 것 이외에 크게 변하지 않아 현재의 만족감도 드러났다.

Table 6. <전농동에 대한 감정>의 구술분석 내용 및 과정

보편적 주제	전농동에 대한 감정
종합주제	예전 동네에 대한 그리움
중심주제	커뮤니티에 대한 그리움
의미단위	[그 때 재밌게들 놀고 있었는데 이거 헐고는 산산조각났지. 어디서 사는가도 몰라 지금은.][여기서도 하고 땀사람이랑도 하고 저 집에 가서도 놀고먹고 했지.][여기서 살썩은 아이고 그때는 재밌게 살았어. 시장동네도 보고 뭐 한동네고 서로서로 재밌게 살았는데 저기 이사가고 여기 헐리니까 다 연락도 못해.][그 때는 다 조그만한 집에서 살았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나간사람들 중에 누가 남았나.][그때는 서로 만나면 웃고 서로 만나며 뭐 먹으라 해싸코 하니깐.][봄, 가을로 땡겼지. 그 때 재밌게들 놀고 있었는데 이거 헐고는 산산조각났지.][저거 나도 언제 먹었던 게 썰로 기억에 나나하면 그 우리 오통 친목계서 놀러갈 때 배추를 세통을 큰놈을 사가고 김치를 큰 통에 담거든 그 때 찢어 먹으면 디게 맛있었어.][하는 게 많았지. 술도 팔고 밥도 팔고 아이고 오통 친목회 놀러가는 날은 그렇게 재밌어. 그 런데 집이 다 부서져버렸는데 뭐 놀러댕겨? 어디서 사는 줄도 몰라.][근디 그 양반들도 다 어디로 가버렸어.][딸이 숙이고 이집 그 집 김씨는 마누라는 양씨야 그 집 허고 친하게 살았지. 집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그 전에는 많이 친했어야 그 동네에서 헐기 전에.]
중심주제	풍경에 대한 그리움
의미단위	[자연스럽고 예전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예전모습이 더 이쁠 거야.]
종합주제	현재의 만족
중심주제	시설의 발전
의미단위	[전농1,2,3,4동 그래서 나머지는 전농동1,2동으로 되었고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겼어. 좋지 뭐.][좋아. 저 얼마나 좋아. 꽃필 때 흰하니 좋고 우리집에서 참 좋아 공기도 좋고.]
중심주제	변함없는 동네
의미단위	[아파트가 들어온 거 이외에는 변한 게 없어.][전농동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이 동네는 변함이 없지.]

III. 결론

본 연구는 구술생애사를 통해 전농동이라는 마을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마을재생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의미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구술 분석 결과는 전농동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정착, 생계수단과 경제성, 커뮤니티, 여가문화로 분류되었고 전농동의 변모에는 전체적인 모습, 길(도로, 골목길 등), 집, 없어진 공간, 변화한

공간으로 분류되었다. 전농동에 대한 감정으로는 예전 모습에 대한 그리움, 현재의 만족 그리고 걱정으로 분류되었다. 전농동 사람들과 전농동에 대한 감정은 프로그램 계획의 활용성, 전농동의 변모는 물리적인 계획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마을재생전략에서 디자인 전략 혹은 공간설계요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설계요소 부분에 있어서는 커뮤니티 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들에 대해 적극적인 계획으로 물리적인 개선 방향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까지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마을재생은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중심, 역사, 문화 자원 그리고 지역 정체성 유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농동이 제2의 고향과 같으며, 자신들의 주거공간이자 생업공간이고, 사회적 연결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간접적으로 전농동의 지역정체성을 알 수 있어 구술생애사를 통한 마을재생전략은 마을밀착

형 계획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구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심층인터뷰와 교차분석을 진행하여 전농동의 역사를 재구성하며, 마을재생전략으로써 전농동의 주민 모두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의 활용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이다. 더해서 실제 대상지에 마을재생계획 시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진행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심영선(2014) 한양도성 인접 노후주거지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통합적 재생방안 연구 - 성북구 성북동 북정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전말숙(2012) 재개발지역 도시 아카이브의 모형 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엄수진, 박소현(2014) 마을 아카이브를 통해서 본 마을 단위 문화유산 기록화 연구 -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 시범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2010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pp. 257-266.
4. Ratner, C.(2002) Cultural Psychology: Theory and Method, New York: Plenum.